

工場紹介

株式會社 유니온

李 榮 二

〈(株) 유니온 建設部次長〉

I. 序 言

대청댐의 푸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봉화봉 중턱에 우람한 姿態를 드러낸 株式會社 유니온의 清州工場－

3萬坪의 넓은 대지위에 펼쳐진 國際規模의 白시멘트 工場은 重化學 韓國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또 하나의 始發點으로 1980年 9月 25日 起工의 첫 삽을 끊았다.

덴마크 F. L. Smidh社와 機資材 供給 契約을 체결하고 外資 530 萬弗, 內資 90 億원의 工事費를 들여 1年 6個月만인 지난 4月 20日 竣工된 유니온 清州工場이 있기까지 그 발자취를 더듬으며 내일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II. 유니온의 어제

지난 64年 年產 15,000ton으로 出發한 유니온은 그동안 自體 技術陣들에 의한 3차례의 施設擴張工事 끝에 年產 50,000ton 規模까지 增設하여 內需는 물론 中東 및 東南亞 地域에 本格的인 輸出이 시작되었다.

社勢의 擴張에 따라 풍림기업(주), 대한탄광, 한성연탄을 흡수 합병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會社名을 「유니온白洋灰」에서 「株式會社 유니온」으로 變更하였다.

1980년도엔 필리핀 PWCC社로부터 白시멘트 工場建設 事業을 受注, 계열회사인 東洋化學工

業(株)과 共同으로 19個月에 걸친 工事끝에 成功적으로 工場을 인도함으로써 國內 最初로 白시멘트 플랜트의 海外輸出의 길을 트기도 했다.

또한 量產體制의 確立을 통한 對外競爭力 強化를 위해 1981年 年產 12만ton 規模의 最新工程에 의한 白시멘트 工場을 新規 建設키로하고 덴마크의 F. L. Smidh社와 契約을 체결, 約 18個月에 걸친 혼신의 努力끝에 명실상부한 國際單位規模의 工場을 積動시키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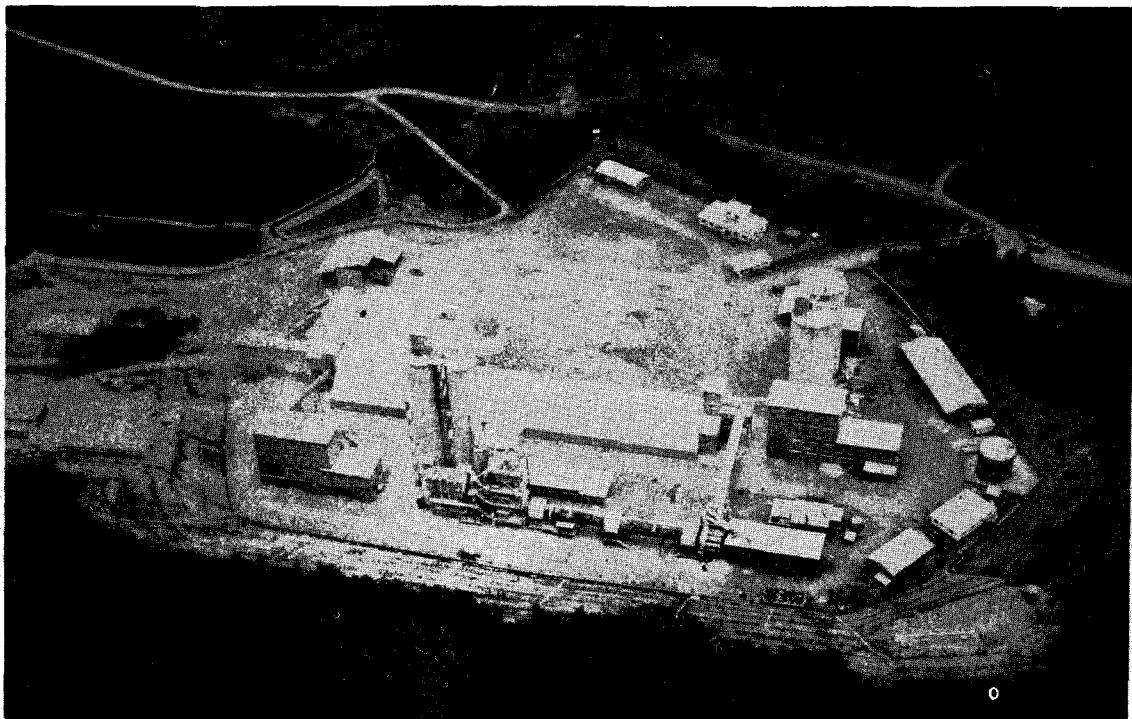
이에 따라 既存의 富川工場은 15年間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끝냈다.

III. 清州工場의 特徵

1. 製造工程部門

시멘트의 製造技術, 설비, 운영과 이에 關聯된 사항은 이미 우리나라로 상당한 水準에 도달돼 있다. 그간의 經驗과 技術蓄積으로 當社도 清州工場 建設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製造工程上 清州工場 施設의 特異한 點만을 간추려보면 시멘트 工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燃成工程에 새로운 技術을 도입, 內的으로는 品質과 原價, 外的으로는 生產性 向上을 기할 수 있도록 燃燒用 2次공기의 경제적 利用을 위한 특수한 設備와 환원분위기用 설비, 크링카의 適正溫度 狀態下에서의 急冷을 위한 키른내 설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설비는



國內技術陣이 아직 接해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品質 및 安全管理 部門

完璧한 試驗検査設備를 利用, 原材料의 購買, 저장, 各 工程別 중간검사, 반제품 혼합, 완제품 검사, 제품 출하, 수송, 보관 등 碩 회석서부터 最終 顧客에게 이르기까지의 品質狀態를 全 단계에 걸쳐 全社的으로 管理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安全管理는 “機械는 새부품으로 바꾸어 가동할 수 있으나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標題아래 전 종업원이 무재해운동의 기수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V. 유니온의 意志

진취적 경영체계를 갖춤으로서 80年度의 극심한 不況 속에서도 清州工場을 建設하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와 함께 설비 및 기술의 現代化에 뜻지 않게 人力의 士氣가 중요하다는 경영진의 運營指針에 따라 사택 및 연립주택, 독

신료를 완비하고 장학금, 새마을 금고, 원거리 종업원들을 위한 出退勤 버스, 종업원 가족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福祉를 위한 배려가 앞서 있으며 이밖에 勞使協助를 위한 制度도 거의 生活化되어 있다.

V. 80年代의 유니온

유니온은 量產體制의 確立과 技術革新 등으로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고 있으나 内外의 여전에 미뤄보아 企業經營上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長期 不況으로 인한 不安要因들이 곳곳에 内在하고 急變하는 對外환경도 不確實 要素로 作用되어 당장 需給추세마저 不透明한 狀況이다.

그러나 어려움은 희망과 용기로 克服해야 된다」는 李會林 會長의 단호한 결의를 싇아 유니온 가족은 굴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물자절약, 원가절감, 품질관리, 응용생산관리, 수출시장개척 등에 솔선 나설 것이며 특히 신제품의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跳躍 유니온」의 새 발판을 구축할 것이다. ♠♣♦